

추미애, 분노한 민심에 영수회담 철회

(민주당 대표)

국민의당·정의당 이어 당내에서도 거센 반발 일자 ‘백기’

흔돈의 정국 해법 제시 못하고 무리수까지... 후폭풍 클 듯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합의했던 영수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했던 국정 농단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은 물론 최순실 파동 정국에서 제1야당으로서 민심 결집의 리더십도, 흔돈의 정국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 민주당이 촛불 민심과는 거꾸로 영수회담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전격 취소된 데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00만 촛불’의 함성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영수회담에 나섰다가 민심 역행과 야권 공조 균열 등을 불러와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5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내 반발이 워낙 커 하루 전에 무산된 것이다.

영수회담은 추 대표가 14일 오전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 회담을 제안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지난 8일 박 대통령의 국회방문 이후 6일 만에 성사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거대한 민심의 하야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박 대통령과 제1야당의 수장인 추 대표가 만나는 것은 여론에 크게 거슬러 애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웠다.

일단 추 대표는 ‘100만 촛불’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하야’를 포함한 ‘대통령 퇴진’을 정국 해법의 선

결 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전망됐지만 끝내 회담 테이블에는 앉지 못했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박 대통령은 ‘헌법 내 총리 권한보장’이라는 ‘절반의 2선 후퇴’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 결국 ‘빈손’ 회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일각에서 헌법의 범위 내에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양측이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게 보였었다.

이런 가운데 영수회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는 물론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도 강력 반발해 향후 정국에 대처하는 야권 공조에 균열이 예상된다.

당장 14일 오후에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는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은 추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강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영수회담과 관련, “회담을 제안한 추미애 대표나 덜컥 받은 박근혜 대통령 두 분 모두 촛불 민심을 저버렸다”며 “추 대표가 회담을 취소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0만 촛불의 함성을 애국한 일”이라고 “영수회담 결과가 국민의 뜻에 어긋난다면 야권공조는 파기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회의’도 이날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할 일은 안 하고 뜬금없는



광주 송정~서울 수서 ‘SRT 시대’ 다음달 개통 예정인 SRT(수서발 고속열차)가 14일 시범 운행을 위해 목포역을 출발, 광주 송정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아래는 SR열차의 최종 목적지인 서울 강남 수서역 전경. ▶관련기사 2·6면 /서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일이나 하고 있는 민주당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영수회담에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영수회담은

밀실야합과 정치적 오만”이라며 회담 철회를 요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순실 특검’ 야당이 추천... ‘세월호 7시간’ 조사 가능성

여야 합의, 90일 국정조사도

검,靑 안가서 박대통령 조사

여야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과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이어 또다시 강도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수사 범위 설정에 따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국정조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된다. 한편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면조

사 방침을 세운 검찰이 16일에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소는 청와대 ‘안가’(안전가옥)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시기를 확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조사 날짜는 아직 조율 중”이라면서 “늦어도 수요일(16일)까지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알립니다

2016 달빛 소나기

‘달빛동맹’ 광주·대구 청년 문화 교류·소통의 장

25~26일 호텔 인터불고

광주일보·영남일보 주최

광주일보는 영남일보와 함께 광주와 대구 지역 간 상생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2016 달빛 소나기’를 오는 11월25일(금)~26일(토) 개최합니다.
달빛은 ‘달구벌’로 불리는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상징하고, 소나기는 ‘소통+나눔+기쁨’을 함축한 말입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와 대구 지역 청년 문화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2016 달빛 소나기’가 광주와 대구 지역 간 화합과 발전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 062-220-0541.

■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 26일(토) ■장소 :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주요 프로그램

11월25일	제1부 달빛소통	14:00~18:00	개막식, 오리엔테이션, 팀빌딩 프로그램, 달빛소통 미션
	제2부 달빛나눔	18:00~22:00	멘토 특강(대중문화평론가 김태훈), 공감콘서트, 달빛네트워킹파티(가수G2)
11월26일	제3부 달빛기쁨	09:00~13:00	달구벌 문화로 투어 (김광석 거리·근대골목 등)

■주최·주관 : 광주일보, 영남일보 ■후원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光州日報社

“홍성담 ‘세월호 7시간’ 전시 불허 김중 차관의 전화 압력 때문”

윤장현 시장 “U대회 고려 수용”

윤장현 시장이 지난 2014년 광주 비엔날레 당시 홍성담 작가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 걸개그림 전시가 무산(광주

며 시정현안을 고려할 때 그냥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하게 U대회를 앞두는 등 시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전시문제 등) 통과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어 “청와대 로부터는 직접적인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관련 부서 등 행정계통으로도 (전시불허) 이야기가 왔다”고 덧붙여 전방위적인 외압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김중 제2차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으며, 그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를 꿰뚫어 보는 홍 작가와 직업정신을 존경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작품을 당당히 내걸지 못하고 현안을 정면 돌파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부끄럽다”면서 뒤늦게 자책했다.

윤 시장은 “2014 한중 문화교류의 밤” 행사 참석을 위한 중국 베이징 출장 과정에서 실무진을 통해 전화를 받았

김 전 차관은 또 “윤 시장과는 U대회 지원 문제 등으로 수차례 통화도 해 대화 번호도 안다”며 “군이 실무자를 통해 전화 연결을 할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